

# 플타임 희망을 쏜다... KIA 이창진의 '뜨거운 겨울'

KIA타이거즈 이창진이 뜨거운 그라운드를 그리며 2021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진의 새해는 특별한 것은 없다. 하던 대로 챔피언스필드를 오가며 개인훈련을 통해 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르다. 이창진은 "새해가 되니까 야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빨리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며 웃었다. 이창진의 그라운드 시계는 2020년 8월 6일에서 멈췄다. LG와 홈경기가 열렸던 이날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그는 첫 타석에 1루로 전력 질주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끝내 그라운드로 돌아오지 못하고 2020시즌을 마무리했다. 이창진은 "햄스트링 부상을 처음 당했는데 뭔가 속상했다. 시즌 초반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뛰지 못하다가 합류한만큼 안 아프고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또 아프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돌아봤다. 시작부터 험난했던 2020시즌이었다. 이창진은 2019시즌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나 허리디스크로 스프링캠프 중에도 귀국했다. 긴 재활 끝에 7월 7일 KT전을 통해서야 시즌 첫 경기를 치렀지만 아쉽게도 그의 시즌은 22경기에서 막을 내렸다. 22경기에서 0.330의 타율을 기록한 그는 특유의 근성 있는 승부로 상대를 괴롭히면서 팀 분위기를 바꾼 키맨이었다. 그만큼 팀에게도 아쉬

지난해 8월 햄스트링 부상 복귀 못하고 시즌 종료 아쉬움 연말연시 챔필 오가며 개인훈련 "빨리 야구 하고싶은 생각 간절 부상 없는 시즌 최우선 목표"

운 부상이 됐다. 코치진도 5강 실패 이유 중 하나로 이창진의 부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창진은 "부상은 안 좋은 것이지만 팀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분이 좋다"며 "어린 선수들이 늘면서 팀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한 발 더 뛰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이창진은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박수를 받는 선수다. 부상도 최선을 다해 뛰다가 얻은 '영광의 상처'. 이창진은 이 부상을 통해 배움도 얻었다. 이창진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하다. 안 아프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무식하게 했던 것 같다"고 웃었다. 하지만 "아파서 못 뛰니까 후회는 됐는데 열심히 뛰지 않았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다"며 "성적이 괜찮았던 때라 아쉬움이 컸지만 부상을 계기

로 느낀 점이 많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심히 뛰는 것만큼이나 건강하게 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운 이창진은 그래서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진은 "마무리캠프에서 새로운 스키줄을 소화했는데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다"며 "한 번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기술훈련을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목표는 플타임이다. 부상이 없어야 가능한 목표다. 이창진은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벌써 중고참이 됐다. 크게 달라질 건 없고 외야 나가서 한 발 더 가서 잡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잡고, 어떻게든 출루해서 뛰겠다. 출루, 방망이 쪽에서 경쟁력 앞세워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치로 잡아놓은 것은 없고 부상 없이 풀로 뛰는 게 최고인 것 같다. 지난해 부상으로 못 뛰면서 야구를 보면 불수록 속상했다. 선수들 잘하는 것 보면 나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부상도 실력이다. 플타임을 목표로 잘 컨트롤해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코로나로 팬들을 많이 못 봤다. 팬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 확실히 힘이 난다. 지난 시즌에는 경기장에 우리 목소리만 들리니까 행하고 재미도 없었다"며 "야구장에서 팬들이 제 이름 외쳐주는 그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안 아프고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창진



## '캡틴' 나지완

올 시즌부터 정식 주장

14년 차 나지완이 KIA 타이거즈의 '캡틴'으로 2021시즌을 뒀다. 나지완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선수단 투표를 통해 '임시 주장'으로 마무리캠프를 이끌었다. FA 신분이 된 양현종을 대신해 팀 기교 역할을 했던 그는 맷 윌리엄스 감독과의 면담을 통해 '임시'를 떼고 올 시즌 주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2008년 단국대를 졸업한 뒤 프로에 뛰어들어 나지완은 2009년 한국시리즈 끝내기 홈런 주인공이 됐고, 지난해에는 '레전드' 김성환의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홈런 기록(207개)을 넘

어서는 등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로 역할을 해왔다. 2019시즌의 부진을 딛고 지난해 좌익수로 플타임 소화를 하며 반전을 이룬 그는 올 시즌 중심 타자로서는 물론 KIA의 고참 선수이자 주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막중해졌다. 한편 올 시즌 KBO에서는 LG 김현수가 3년 연속 주장으로 뛰며, NC의 '우승 주장' 양의지도 2년 연속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나지완과 함께 롯데 전준우, SK 이재원, KT 황재균, 키움 박병호가 '신임 주장'으로 2021시즌을 맞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토틀넘 리그컵 결승 상대는 맨시티

4월 26일 경기...토틀넘 우승 땀 13년만의 정상

손흥민이 뛰는 토틀넘의 잉글랜드 축구 리그컵(카라바오컵) 결승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로 결정됐다. 맨시티는 7일 열린 2020-2021 카라바오컵 준결승전에서 존 스톤스와 페르난지뉴의 연속 골에 힘입어 '지역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유)를 2-0으로 제압했다. 2017-2018시즌부터 최근 3년 연속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던 맨시티는 올해도 결승에 올라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맨시티는 전반기 2부리그 팀 브렌트퍼

드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선착한 토틀넘과 4월 26일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트로피를 다툰다. 맨시티가 결승전에서 승리하면 리버풀과 역대 최다 타이에 해당하는 통산 8번째 우승을 달성하고, 토틀넘이 이기면 2007-2008시즌 이후 13년 만에 자 통산 5번째 리그컵 정상에 오른다. 맨시티의 4년 연속 결승 진출을 이끈 페르 과르디올라 감독은 첼시, 맨유에 이어 토틀넘에서도 리그컵 정상 등극을 꿈꾸는 조제 모리뉴 감독과 결승에서 직각 대결을 펼치게 됐다. /연합뉴스



토틀넘 핫스퍼의 손흥민(가운데)이 지난 6일 영국 런던의 토틀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풋볼리그컵 4강전에서 승리한 뒤 조제 모리뉴 감독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저연봉 선수 제주서 전훈 캠프

선수협·선수트레이너협, 24일까지 자율훈련 지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저연차·저연봉 선수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서귀포 동계트레이닝 캠프를 연다. 선수협과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동계 트레이닝 캠프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지원 속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다.

이번 캠프는 비활동기간 저연차·저연봉 선수의 자율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는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통한 부상 예방과 안전한 경기 참가, 경기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김

용일 회장(현 LG 수석트레이닝코치)과 스티브 홍(스포츠 사이언스)을 비롯한 현직 프로야구단 트레이너 10여 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한다. 저연차 저연봉 선수를 대상으로 열리는 캠프인 만큼 참가자는 숙박 및 식비를 제외한 별도의 트레이닝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해 선수단과 트레이너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대규모 훈련장에 소규모 인원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훈련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만능 수비수 이지훈 영입

빠른 스피드·정확한 크로스...윙어·중양미드필더 전천후 자원

광주FC가 전천후 수비수 이지훈(26)을 영입했다. 광주는 7일 "울산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 수원FC에서 활약한 오른쪽 측면 수비수 이지훈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지훈은 176cm·69kg 날렵한 체격으로 탄탄한 수비와 함께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가 장점이다. 오른쪽 수비뿐만 아니라 윙어, 중앙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도 꼽힌다. 이지훈은 울산 현대고와 울산대에서 각각 제95회 전국체육대회·제 11회 주계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준우승 멤버로 활약했고, 2016년 제47회 전국주계대학축구연맹전(4강) 등 대학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2017년 울산에 입단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19년 여름 인천으로 입대를 떠나 7경기를 소화한 이지훈은 지난해에는 수원FC에서 21경기에 나와 공·수에서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 승격에 이바지했다. 광주 김호영 감독은 "이지훈은 견고한 수비력, 빠른 스피드, 공격기담뿐 아니라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수비수다"며 "광주 측면에 좋은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은 "광주는 그라운드에서 끈끈한 팀워크와 열정, 투지가 넘치는 팀이다. 그 점이 나와 잘 맞는다"며 "새로운 도전을 광주에서 하게 돼 기쁘다. 경쟁을 통해 팀에 무게감을 더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